

탄소중립·폐기물제로·자원순환 선도! 평화인권·환경의 수도 제주, 이재명은 합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환경산업의 중심, 평화·인권·환경수도, 제주”를 만들기 위한 9대 공약 발표.

제주 9대 공약

① 폐기물 제로, 순환자원 혁신도시로 육성 ② 햇빛과 바람의 섬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육성 ③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도입으로 도민의 경제기본권을 실현 ④ 제주4.3의 완전한 해결로 평화와 인권의 상징 ⑤ 자치분권의 완성과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구축 ⑥ 제주 국가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문화의 거점을 조성 ⑦ 상급종합병원 지정,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로 도민건강권을 확대 ⑧ 일과 휴식, 지역경제도 살리는 워케이션 성지를 조성 ⑨ 제주의 미래먹거리, 바이오헬스와 우주데이터산업 육성

- 이 후보는 2월 13일 “환경산업의 중심, 평화·인권·환경수도, 제주”를 만들겠다는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대 핵심공약을 이행할 것을 제주도민과 국민 앞에 약속했다.
- 이날 이재명 후보가 “세계적 관광도시 제주에 대전환의 시대 환경산업의 중심지로서 미래비전을 담았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발표한 제주 9대 핵심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제주를 폐기물 제로의 순환자원 혁신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기초환경시설 수용량이 초과되어 도민과 관광객의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 제주 지하수 보호와 물관리체계를 혁신하고, ▲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순환자원 혁신도시 육성으로 재할

용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전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둘째, 햇빛과 바람의 섬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해 ▲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 남은 전력을 그린수소 생산자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지원 ▲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 ▲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고속도로가 가장 먼저 정착시키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셋째,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도입으로 도민의 경제기본권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제주도민의 임금수준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주를 ▲ 기본소득을 제주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도민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범도로 지원 ▲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의 소득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넷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로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해 ▲ 지속적 진상조사와 평화치유산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 4·3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여 전 세계 과거사 해결의 모델로 ▲ 알뜨르 비행장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다섯째, 자치분권의 완성과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이다.

제주도를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성공적 모델로 완성하기 위해 이 후보는 ▲ 제주특별행정지원청 설치하고, ▲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의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효과적으로 구축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로 지역주민의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여 도민의 직접참여와 행정의 민주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여섯째, 제주의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제주 국가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문화의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제주의 청정 바다와 항만이라는 특성을 살려 ▲ 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성장기반이자,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 ▲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으로서 해양문화플랫폼 역할을 지원 ▲ 스마트농수산업플랫폼 구축, ▲ 농산물통합물류센터 건립 등 물류체계 개선, ▲ 농산물 해상운송비 택배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속했다.

- 일곱째, 상급종합병원 지정,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로 도민건강권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수술실, 회복실 등 전문치료 병상 수가 전국 평균 대비 부족한 제주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의 특성을 감안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통해 제주도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 중증 치료를 위해 외지로 나가는 원정 진료의 불편함을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 여덟째, 일과 휴식, 지역경제도 살리는 워케이션 성지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후보는 워케이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 제주가 일과 휴식, 관광을 접목하는 ‘워케이션(Workation)’의 최적지로 자리하도록 적극 지원 ▲ 제주 어디서나 원격근무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반을 구축 ▲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반으로 이동의 제약이 없는 워케이션센터를 조성 ▲ 워케이션센터 이용자들에게 지역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 아홉째, 바이오헬스와 우주데이터산업을 제주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 9대 핵심공약인 제주의 먹거리 산업을 위해 ▲ 제주도 생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환경자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 항공우주연구원 데이터 센터를 설치, ▲ 항공우주기업과 우주데이터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4.3의 해원과 정명을 위해 애써온 도민사회의 헌신과 4.3의 완성을 위해 노력한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여 이어받겠다.” 며, “제주는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원(資源)으로서, 많은 시련을 겪어온 제주의 아픔을 저 이재명이 치유와 회복으로 일으키겠다.” 는 각오를 밝히면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유능함을 증명해 온 이재명에게 맡기면 정말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주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 고 약속했다.